

가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재호

농업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 1등경영

농기계수리센터 이전해 연합공동판매사업 선별장 활용



가산농업협동조합은 심재호(사진) 조합장을 비롯해 2천166명의 조합원과 81명의 직원과 이사6명, 감사2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농업협동조합은 2006년도에 미국,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쌀이 시판되어 쌀수매 걱정이 앞섰으나 조합 임직원과 가산초등학교 총동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쌀 부족현상까지 이르렀고 벼 저온저장시설 1000톤을 증설하여 관내 농민이 생산한 벼를 전량 매입했다.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여 하나로마트 확장과 종합사무실 환경개선에 2006년도 사업전체가 팽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작자를 예상했던 RPC에서 3억원이상 흑자를 창출했고 예수금 규모도 20.7% 성장한 1천248억원을 돌파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보다 36%증가한 14억5천만원을 창출해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따라서 전 조합원에게 이윤과 기본배당으로 각 10만원씩 2억여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윤실적배당으로 5억7천7만원과 출자배당 5.92%인 1억7천800만원을 지급해 총 9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사업준비금 3억5천만원을 적립했다.

아울러 조합원 자녀 대학 입학 장학금을 2006년도에 92명에게 70만원씩 6천44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02년부터 시작해 2006년까지 363명에게 2억4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벼 출하 장려금 1억3천만원과 벼씨·비료·농약 등 교육 지원사업비 7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가산농협은 지난해말 건전 경영평가의 지표가 되는 크린뱅크 인증과 경영평가 전부분 1등급으로 4년 연속 달성했으며 특히 해솔촌 팔도농 대한민국 우수특산물 대상 수상했으며 2006년도 농업 유통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었고 자랑스런 경기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도에 가산농협의 회원사업 지원실적은 ▶조합원 편의사업 1억668만16천원 ▶농기계 이용 장려금 1천94만원 ▶농기계 수리비 1천667만2천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천191만1천원 ▶영농자재 서비스 지원 901만9천원 ▶조합원자녀 장학금 6천440만원 ▶유기물비료지원 5천410만원 ▶노인정 유류지원 1천526만원 ▶경

조비 1천350만원 ▶상토지원 692만1천원 ▶토양개량제 249만2천원 ▶벼 계약재배 자재지원 1억4천969만1천원 ▶정보화 및 영농기술교육 241만9천원 ▶축산농가 지원 82만8천원 ▶특색작물개발 보급 2천96만원 ▶벼품질시험조사 132만원 ▶조합원 건강검진 보조 330만원 ▶농업인안전공제 2천216만6천원 ▶농작물 재해공제 98만8천원 ▶지역특산물 홍보 410만5천원 등 5억2천357만3천원이다.

2007년도에는 신규로 벼육묘장 설치사업과 원로조합원 경로위안 잔치를 처음 실시할 계획이다. 경로위안잔치는 만 75세이상 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산농협의 현안사항으로 심 조합장은 "농기계수리센터와 현재 주유소가 인접해 있어 부지를 구입하는대로 이전할 계획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며 "부지가 확보되면 일동, 가산, 포천, 소흘 농협이 연합공동판매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금지, 포도 등의 선별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조합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등경영과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임직원의 도전정신, 그리고 조합원 모두가 합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산농협 이사 및 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의 임기는 2010년1월19일까지이며 신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3월30일부터 시작된다. 이사 ▶이극중 ▶김광섭 ▶이덕순 ▶김신필 ▶황병철 ▶양훈근 ▶감사 ▶이대순 ▶이주연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재테크 ④

부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법칙 3 100-나이 법칙

최근 직장에 다니는 30이 넘는 미혼 남자와 몇 사람을 재우 컨설팅하기 위해 만났다. 아주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저축의 비중도 생각보다 높았다. 정말 착실해 보여서 참한 여성이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혹시 독자 중에 아무진 여성이 있으면 연락하길... 재무컨설팅하다 보면 이렇게 탄 일도 본의 아니게 하게 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재테크 수준은 너무 옛날식이라는 거다. 대부분 월급을 어머니께 맡기고 어머니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은행에 적금만 하고 있었다. 이번에 1년 동안 시중은행에 적금

한 돈을 찾은 강성실(가명)씨는 쉼표라만한 이자에 적잖이 실망했다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다.

먼저 나성실씨의 1년간 저축 결과를 보자. <표 참조>

1년간 아껴가며 월급의 80%까지 적금을 해서 원금이 1천9백20만원인데 이자라고는 416,000원. 거기에 이자 소득세를 빼고 하니 30만원 대로 뚝 떨어진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1년간 인플레이션 3.5%. 이를 반영하면 거의 불어난 게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더니 투자는 위험하지

않느냐고 금방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물론이다. 투자는 은행저축과 다른 위험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투자를 할 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연령대, 가족구성, 목적자금에 필요한 시기 등이다.

특히 내 소득의 어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지를 결정할 때 많이 응용하는 법칙이 100-나이 법칙이다. 100과 나이의 차 부분을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에 편입하고, 나머지 자산을 안전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30세에, 월100만원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경우 70만원 정도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에, 30만원은 원금보장의 안정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또는, 5천만원의 목돈이 있다면, 3천5백만원은 거치형 펀드에, 1천5백만원은 세금우대예금에 예치하는 것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투자자산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젊은 나이일수록 위험에 대한 충격이 덜하고,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 기간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형태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예적금 비중이 크지만, 현재 적립식 펀드와 변액유니버설보험 등의 수익성이 큰 금융자산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 때 100-나이 법칙을 활용하여 투자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면 유용하다.

조금 더 세심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자산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부유한 미래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 이 사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평생을 교육에 몸 바 오다 정년 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 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공 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 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아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지급조 부용 금  
용역의 제공이 되기 전에 계약금이 의 대가를 나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정  
031-870-45

이 면

철도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형 목공인 피해자(남, 46세)가 더 피상단 크리트 측압에 의해 리면서 크리트(약40 )가 순간적으로 아저 크리트와 함께 되며 구간으로 추락(약7 )하여 사망한 채해임.

가. 거 집 설치미  
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 집 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미 실시

동 대  
가. 거 집 설치 철지  
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 집 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 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 속도 및 타설 높이를 준수하거나 버 대 수직지지거리 간격을 게 하는 등 충분한 보강조치 철지.

자료제공 국 공 단 기 지 031-86-601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⑫ 선단 참숯풍천장어구이

자연산처럼 육질이 최고인 장어만 엄선



대표 박용마

포천시 선단동 지역사 맞은편에 위치한 선단 참숯풍천장어구이(포천시 선단동 440-1 대표: 박용마)는 풍천장어구이와 조개구이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곳이다.

박 대표는 이곳을 오픈하기 전 서울에서 10여년 넘게 장어 도, 소매로 장어와 함께해온 장어전문가답게 이 곳에서도 박 대표는 장어를 으뜸 메뉴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에 개업한 선단 참숯풍천장어구이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확 트인 실내공간이 찾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한다. 박 대표가 개발한 소스는 대부분의 소스와는 달리 '끓이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를 발효'시키는 특별한 비법을 택하고 있다. 처음 맛과 뒷맛이 개운하고 맛이 살아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법 사용으로 한번 찾아온 고객들은 꼭 찾는다고 말한다. 그 다음은 장어의 육질이 맛을 좌우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현재 박 대표는 "풍천장어는 영광과 고창에서 나오는 장어만을 고집하고 있다. 장어는 양식하는 방법에 따라 육질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노지에서 자연상태로 기른 장어'만을 엄선해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노지에서 자연상태로 기른 장어와 박 대표가 직접 개발한 소스가 만나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풍천(민물)장어 1Kg(3피리 한판) 가격은 3만5천원을 받고 있다. 양념 소스는 다양하므로 고추장, 간장, 소금 중에서 입맛에 맞는 양념을 선택해 먹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산 바다장어(아나고 숯불구이: (대) 3만원, (중) 2만 5천원), 자연산 바다장어(아나고 회: 2만 5천원)가 맛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꼬시, 광어, 우럭 등 입맛에 따라 생선회를 맛볼 수 있으며 매기 매운탕, 조개탕, 가리비회, 산나지, 멧게 등 싱싱한 해물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골라먹는 재미도 술술 하다. 선단 참숯풍천장어구이에서 두 번째 가리비 서운한 모듬조개구이와 모듬찜이 고객의 입맛을 당기게

풍천장어구이와 자체 개발한 소스 최고의 맛 5가지 이상 해산물과 어울린 해물칼국수 별미

없다. 단체손님을 받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예전부터 장어는 미네랄·칼슘·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피부의 탄력 및 혈관, 내장에 윤기를 제공하며 세포를 젊게 해주므로 노화방지에 으뜸가는 음식 중 하나다.

또한 아이들의 허약 체질개선과 폐 기능 강화에 최고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좋은 식품도 맛이 있어야 고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선단 참숯풍천장어구이 박 대표는 이러한 고객들의 입맛을 알고 맛있는 장어구이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만의 양념소스 개발에 성공하면서부터 장어구이 전문점을 개업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매일 연안부두에서 들어오는 가리비, 담치(홍합), 칼조개, 명주조개, 우럭조개, 웅피, 소라 등 싱싱한 어패류 사용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메뉴다. 모듬조개구이나 모듬조개찜을 다 먹고 나면 이 곳에서 제공되는 또 하나의 별미가 대기하고 있다. 바로 해물칼국수다. 새우, 바지락, 오징어, 쭈꾸미 등 5가지 이상의 해산물이 어울린 별미중의 별미라 한번 먹어본 고객은 별도로 주문할 정도라고 한다. 가격은 (중): 2만 5천원 (대): 3만원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순대국 하면 무봉리를 떠올리게 하듯 장어 하면 선단동'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고객 맞이에 분주하기만 하다.

예약문의 T 031)541-2592, Hp 010)3102-192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단 정 공 리 공 사 기 . 단

국민연금 Q&A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연금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나?

1명 사망하면 유족연금과 비교 선택해야 60세 되면 자동지급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빨리 가입할수록, 많이 낼수록, 부부가 함께 가입할수록 이득'이라고 말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그만큼 노후 고령수입이 늘어나 더욱 안정적인 것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평균 소득자에 해당하는 월 소득 129만원의 A씨를 생각해보자. A씨가 단독으로 3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노후에 매달 62만339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부인과 함께 가입했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부부가 함께 30년을 가입하면 매달 121만6080원을 받게 돼 어느 정도 여유생활까지 가능해진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명 모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에 각자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하며 두 명 모두 사망 시까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즉 부부가 연금에 가입했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했다 해도 두 사람 모두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만약 동시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직장 없는 부인이 돼 임의연금에 가입 하겠는가.

연금 지급 사유는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에 가입한 남편이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 만약 부인이 2살 아래라면 남편보다 2년 늦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 국민연금을 내고 나이가 들어 각각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만 아니라면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각자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



가. 거 집 설치 철지  
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 집 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거 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 속도 및 타설 높이를 준수하거나 버 대 수직지지거리 간격을 게 하는 등 충분한 보강조치 철지.

자료제공 국 공 단 기 지 031-86-601